호남미래포럼, 지역작가들을 응원하다

3년 전부터 미술전 개최, 20~25일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황영성·최영훈·신문용·김병종·홍형표 등 7명 24점 전시

(사)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이사장 김동신·이하 미래포럼)은 호남의 지역 발전과 인재육성을 목표로 지난 2013년 창립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책세미나, 조찬포럼 등을 개최해온 미래포럼은 지난 2020년부터 의미있는 행사를 진행중이다. 광주·전남북 지역 작가들을 초청해 서울에서 전시회를 열어주는 기획이다.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컬렉터들과 연결해 작품 판매도 돕는 등 지역 작가들을 응원하는 프로젝트로 첫해 행사에서는 운영비 등으로 판매 금액 일부를 사용했지만, 지난해부터는 판매액 전액을 작가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처음 시작된 미술전은 '호남 초·중견 미술작가 공모전'이라는 타이틀로 열렸다. 공모를 통해 3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19명의 작가를 선정, 전시회를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예향의 숨결전'이 열렸다. 심사과정을 거쳐 광주·전남에서 활동하는 이존립·류재웅·한희원·신철호 작가와 전북의 오형숙 작가를 초청,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지난해 작품 판매금액은 모두 6600만원이었다.

올해 행사 2022 호남미래포럼 제3회 미술전 '함께하는 봄'에는 모두 7명의 작가를 초대했다.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인 인사아트센터 6층에서 열리는 전시에는 황영성·최영훈·신문용·박진우·윤형호 작가 등 광주·전남 출신 5명과 김병종·홍형표 작가 등 전북 지역 작가 2명을 초청했다. 전시작은 모두 24점이다.

올해 역시 판매금액 전액은 작가에게 돌아가며 원로작가들은 작품 판매 금액의 일부를 후배 작가들을 위해 내놓기로 해 훈훈함을 더한다.

황영성 작가는 2022년 신작 '호랑이 가족'과 '소와 가족'을 출품했으며 신문용 작가는 트레이드 마크인 'WAVE' 시리즈 두 점을 내놓았다. 최영훈 작가는 '무등의 봄', '봄날의 꿈', '5월의 장미' 등 화사한 색채가 돋보이는 작품들로 미술애호가들을 만난다. 김병종 작가는 '화홍산수'와 '생명의 노래-무지개 뜨는 마을'을 선보이며 홍형표 작가는 쌀을 소재로 한 '미생예찬' 시리즈를 전시한다. 박진우 작가와 윤형호 작가도 각각 'Think' 시리즈와 '기억을 건너는 시간' 시리즈를 전시할 예정이다.

미래포럼의 전시는 해마다 특정한 틀 없이 진행된다. 운영위원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프로젝트를 이어간다. 출발은 공모전이었고, 중견작가, 원로작가들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청년작가 대상 전시도 기획해 보는 등 경계 없이 다양한 전시회를 꾸릴 예정이다. 또 호남미래포럼이 개최한 전시에 자부심을 갖도록 작가 선정에도 더 신중을 기할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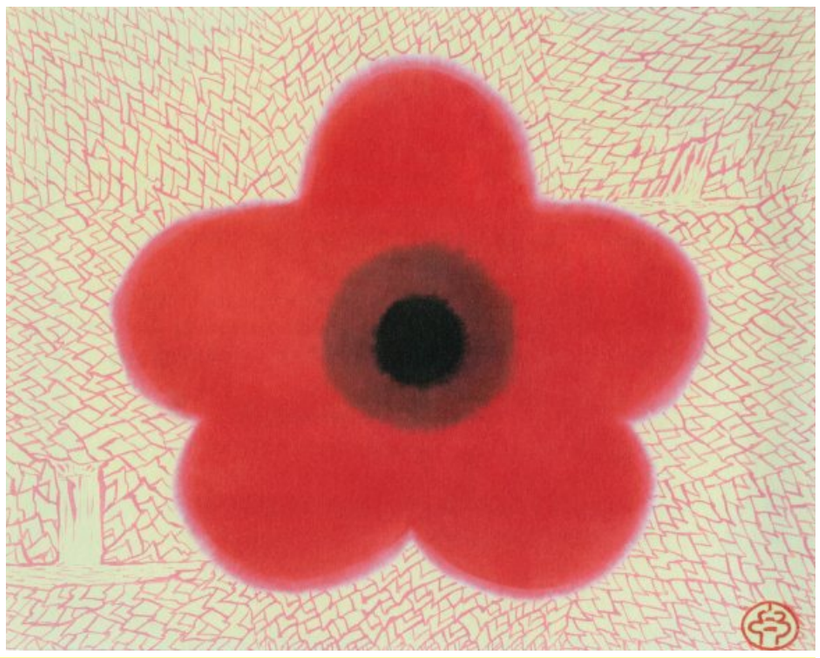
미래포럼 전시에는 서울에 분관을 갖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과 전남도립미술관도 힘을 보태고 있다.

"처음 출발은 피렌체의 메디치가처럼 문화를 후원하며 지역 인재를 키워보자는 마음도 있었지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들게 활동하는 작가들에게 조금이라고 도움을 주기 위해 전시회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호남지역은 문화예술가들이 많고 수준도 높은 지역입니다. 전시를 개최하고 판매도 도와주면서 작가들이 좀더 커 나갈 수 있도록 후원할 생각입니다."

도예 작가 출신으로 이번 전시를 기획한 김미란 호남미래포럼 운영위원은 "지금은 1년에 한 차례지만 앞으로 전시 횟수를 늘려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02-539-771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황영성 작 '호랑이 가족'


김병종 작 '화홍산수'

자연·치유…7월까지 ACC 인문강좌

27일, 장이권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장 강연

'자연', '정원', '치유'…. 말만 들어도 행복하고 여유가 느껴지는 말들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ACC·)이 올해 여는 대표 인문 강좌의 주제들이다. ACC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7시 ACC 극장3에서 인문강좌를 개최한다.

먼저 장이권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장이 오는 27일 '자연으로 떠나는 소리여행'을 주제로 상반기 문을 연다. '소리'를 매개로 동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한편으로 급격히 진행되는 자연환경의 변화를 살펴본다.

장 관장은 JTBC'차이나는 클라스' 등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동물행동학', '야외생물학자의 우리 땅 생명 이야기' 등을 펴냈다.

5월 25일에는 예술공학자인 김진택 포스텍 교수의 '테크네로부터 지속가능 디자인에 대해'가 펼쳐진다. 융합적 지성으로 테크네(테크롤로지의 그리스 어원)를 토대로 새로운 상상력과 미학적 태도 등을 통해 실존적 통찰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테크네 상상력(인간·기계·문화를 관통하며)', '가치를 디자인하라' 등을 저술했다.

신형철 교수

장이권 관장

이어 6월 29일 김봉찬 생태조경가의 강의가 예정돼 있다. 김 조경가는 제주 베케, 아모레 성수, 모노하 한남, 피크닉 어반 포레스트 가든 등을 조성했으며 이번 강좌에서 베케 정원의 디자인 원리를 고찰한다.

미문과 정확한 비평으로 정평이 난 신형철 문학평론가는 오는 7월 27일 일본 영화계의 젊은 거장 하마구치 류스케의 영화들을 모티브로 강연한다.

강연은 ACC 온라인 채널 ACC 플러스에서 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장애인의 날 '똥 싸는 소리' 시사회

조재형 감독 "용기 주는 친구 모습 담아"…20일 광주극장

조재형 감독의 장편영화 '똥 싸는 소리'가 장애인의 날인 오는 20일 오후 7시 광주극장에서 시사회를 갖는다.

조재형 감독이 연출을 맡고 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김지연)와 실로암사람들(대표 임용목)이 공동제작한 이번 영화는 일도 사랑도 잘 해내고 싶은 하반신 마비 여성 장애인 '미숙'(임도윤)의 삶과 사랑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 영화다.

조재형 감독은 4년 전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됐다. 이후 광주영화영상인연대와 영화제작 프로젝트 '동행'을 기획, 시나리오 개발지원을 시작했다. '2021 광주 영화 제작 지원사업', '지역 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실로암사람들의 후원을 받아 제작비를 마련했다.

약 1년 2개월 간의 제작과정을 거친 이번 영화는 광주지역 영화인들로 스태프가 구성됐으며, 광주·전남 올로케 작품이라는 점이 돋보인다.

조재형 감독은 "장애를 갖게 되면서부터 세상의 차별과 편견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로 나에게 용기를 주는 친구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던 것이 이 작품의 시작이었다"라고 제작 동기를 밝혔다. 공동체 상영 및 문의 광주독립영화관 062-222-1895.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동네여행자'

김세희 개인전, 30일까지 갤러리 포도나무

'기타카가야의 골목 풍경'

'드로잉으로 만나는 일상.'

담백한 수채화와 연필화로 그려낸 삶의 모습이 위안을 준다. 어디에나 있을 법한 동네 풍경을 만나고, 식물원을 마음에 담는다. 한가로이, 느긋하게 걷는 동네 산책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일상은 평화롭다.

김세희 작가 드로잉 전 '동네 여행자'가 오는 30일까지 광주 광주시 남구 양림동 갤러리 포도나무(백서로 79-1)에서 열린다.

전시에서 만나는 공간은 일본 오사카의 조용한 변두리 동네 기타카가야와 대만의 타이페이 식물원이다.

기타카가야의 골목 풍경은 20여점의 연작으로 이루어진 수채화다. 항구를 병풍처럼 둘러싼 공장 지대와 자연스레 이어지는 소박한 주택가를 만나는 기타카가야는 그녀가 어릴 적 살던 곳과 겹쳐졌고, 그녀는 다양한 모습을 담담하게 수채화로 그려냈다. 작고 오래된 집들이 1m20㎝ 네 폭의 종이 위에 좌우로 펼쳐져 있는 골목도감은 덤덤하고 부드럽게 그려져 있다.

'타이페이식물원'은 연필 드로잉으로 묶인 책이다. 식물원을 발견 한 첫날, 청소하는 직원 아저씨 뒤를 쫓아 식물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두 번째 산책, 산책하는 사람들을 그리다 보니 그들의 관찰 자체가 궁금했던 마지막 산책으로 이루어진 일상의 지도다.

대상의 특징을 빠르게 표현하는 연필의 성격이 부각되면서 대담하게 세부가 생략된 이미지들이 책의 페이지들을 켜켜이 채우고 산책길을 따라 그가 만난 사람과 동물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한 김 작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행 그림전 '문닫힌 짜이가게', '동네 여행자의 동네살이' 등의 전시회를 열었다. 오픈 시간 수~일요일 오전11시~오후 6시. 문의 062-655-7900.

/김미은 기자 mekim@

전남도립미술관, 리움 순회전 연계 16일 예술가 토크

전남도립미술관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전남도립미술관 지하 1층 전시장 로비에서 리움미술관 순회전 '인간, 일곱 개의 질문'(5월29일까지) 전시연계 프로그램으로 '아티스트 토크'를 개최한다.

'아티스트 토크'는 작가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전시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객 스스로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인간적 가치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작가는 이번 전시에 작품을 출품한 김옥선, 염지혜, 정은영, 최하늘 작가 등 4명이다.

김옥선 작가는 'Happy together' 작품에서 국제결혼 부부를 다룬다. 염지혜 작가는 장소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회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 정은영 작가는 미술, 영화, 공연의 장르를 넘나드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2019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에 참여한 바 있다. 최하늘 작가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조각가로서 3차원의 입체물과 3차원적 경험을 유도하는 작업으로 기존의 보는 방식에 대한 고찰을 이어 왔다.

아티스트 토크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네이버 사전예약과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since 1982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